

전남대 연행자·가혹행위 희생자 등 다수 묻힌 듯

옛 광주교도소에 암매장 된 희생자들은 누구

80년 당시 보안사 기록 사망자 28명과 밀접한 관련 추정
5월단체 “3공수가 끌고 간 시민 100여명 중 상당수 사망”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옛 광주교도소에서 5·18 행방불명자 발굴조사에 착수하면서 암매장 추정지에 묻힌 희생자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18재단은 현재 5·18 당시 교도소에 주둔했던 제3공수여단 김모 소령이 지난 1995년 검찰조사 때 제출한 메모와 약도를 바탕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소령은 검찰에서 “(1980년)5월23일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전남대학교에서 광주교도소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뒷받침 숨진 3명을 포함해 12구의 시신을 매장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의 진술대로라면 최소 3명은 1980년 5월21일 제3공수여단이 주둔지인 전남대학교에서 광주교도소로 철수하면서 숨진 희생자다.

5·18 기념재단 등은 김 소령이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12명이 80년 당시 보안사령부 기록에 나와있는 광주교도소 내 사망자(28명)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18 이후 교도소에서 발굴한 시신이 모두 11구였던 점으로 미뤄 그 나머지 17명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5·18 당시 공수부대에 붙잡혔던 강길조씨는 1989년 국회 청문회에서 “전남대에서 교도소로 이송될 때 통신택시차로

보이는 차에 40여명이 함께 탔다”며 “군인들이 밖에서 테이프를 문을 밀봉하고 최루탄을 넣어서 화상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고통에 못 이겨 창문에 머리를 부딪치고 코피, 대소변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교도소에 도착해 시신 10여구를 보고 군인들이 시신에 변호를 써넣은 채 사진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5월 단체 관계자들은 이들을 전남대·광주역 인근에서 붙잡혀 연행됐던 시위대이거나 교도소 인근에서 계엄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민간인으로 보고 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월 단체에 따르면 3공수가 전남대에서 퇴각할 때 트럭 2대를 이용해 시민 100여명을 교도소로 끌고 갔다. 5월 단체는 교도소 의무대 약품 수급대장을 통해 이 시기 하루 100여명 이상 중환자가 치료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교도소 내 가혹행위로 인한 희생자이거나 교도소 앞을 지나가다 공수부대의 시격을 받고 사망한 사람들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3공수여단은 교도소에 주둔한 21일부터 20시간 62연대와 교대한 24일 정오까지 교도소 주변을 지나는 차량과 행인을 향해 총탄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오전 광주시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추정지를 살펴보고 있다. 5·18재단은 이날 중장비를 이용해 콘크리트 포장과 수풀 등 걸쭉한 장애물을 제거했으며, 6일부터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승을씨는 국회 청문회에서 “5월21일 오후 8시경 일행 4명과 자동차를 타고 교도소 앞 도로를 따라 담양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계엄군 총격을 받았다”며 “이때 고규석·임은택씨 등 2명이 가슴, 어깨, 허벅지 등에 총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고규석씨는 “최순실 국정농단”

으로 주목받은 고영태 전 더불어민주당 이사의 부친으로, 같은달 31일 교도소 안에서 매장된 채 발견됐다. 향쟁이 끝난 뒤 교도소 정문 앞 야산에서 암매장 시신으로 발견된 서만오·최열락씨 등도 총상 사망자다.

정수만 5·18재단 비상임 연구원은 “보

안대는 광주교도소에서 2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축소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광주교도소에서 부상을 입고 헬기와 트럭으로 후송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눈·코·입에 파리에 붙은 채 숨져... 그야말로 생지옥”

옛 광주교도소서 어떤 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동통이 온몸을 때렸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누워있는 사람들의 눈과 코, 입에 파리가 붙어 있었다. 이들은 밤새 고통에 못 이겨 소리 없이 죽어간 것으로 보였다.”

지난 2014년 발간된 ‘광주교도소사’를 살펴보면 5·18민주운동 당시 광주교도소에는 상무대 영장에 갇혔던 시민 4000여명 중 427명이 수감됐다.

3공수여단이 주둔했던 1980년 5월21일 오후 5시30분부터 24일 낮 12시30분까지의 광주교도소는 무자비한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 신음과 비명이 끊이지 않은 곳이었다.

당시 교도관이었던 흥인표씨는 지난 1989년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5·18 때의 참상을 설명했다. 그는 “21일 저녁 식사 후 천막을 씌운

도착 즉시 곤봉·군화발 구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매 타작
밤새 고통에 소리없이 죽어가

트럭 1대가 교도소에 도착했고 70~80명이 내렸다”며 “군인들은 사람들이 내려올 때 동시에 곤봉으로 때리고 군화발로 걷어차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흥씨에 따르면 연행자 대부분은 수감 시설이 아닌 창고에 갇혔다. 보안대 요원들이 연행자들을 조사할 때는 옆에서 공수부대원들이 지키며 곤봉을 휘둘렀고 가혹행위로 1명이 죽어났다는 소문도 돌았다. 교도관 숙소까지 연행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려 잠을 못 이룰 때도 많았다고 한다.

당시 연행됐던 시민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무수한 구타가 있었다고 일관

되게 증언하고 있다. 최병욱씨는 증언집에서 “군인들이 물 한 모금 없이 견뎌 한 봉지를 주면서 두세 사람이 나눠 먹으라고 했다”며 “저녁에 잠을 잘 때 모기가 물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불려내서 매 타작을 했다”고 밝혔다.

박삼수씨는 “교도소에서 3일째 돌아가면서 맞기만 했다.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차라리 전남대에서 죽었으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까지도 했다”고 말했다.

김재연씨는 “뜰려온 다음날 아침에 주위를 둘러보니 몇 사람이 그대로 누워 있었고 눈과 코, 입에는 파리가 붙어 있었다”며 “밤 사이 고통에 못 이겨 소리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보였고, 군인들이 이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을 보고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빠르면 20일께 유해 존재 확인 가능

유해 언제쯤 나올까

이르면 오는 20일께 옛 광주교도소 추정 암매장지에서 5·18 행방불명자의 유해 존재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5·18기념재단은 “오는 6일부터 문화재 발굴 방식으로 발굴 조사가 들어가 날씨가 여건만 좋다면 약 15일 뒤 유해 존재 여부가 판명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암매장 발굴조사를 추진한 5·18재단은 지난 3일 범무부에서 승인이 떨어진 직후부터 사전 작업에 들어가며 조사를 서둘렀다. 3일 발굴 대상 구역 주변에서 잡초, 나뭇가지 제거, 장비 배치

등 기초작업을 진행했다. 교도소에서 암매장 장소로 지목된 곳의 발굴이 이뤄지는 37년 만에 처음이다.

다음날인 4일에는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발굴 대상 구역에 깔린 콘크리트를 제거했다. 발굴 지역은 교도소 담벼락 외곽 순찰로 주변으로, 5·18 이후 일부 구역이 콘크리트로 포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5·18 재단 관계자는 “문화재 발굴 방식은 과거에 흙을 파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며 “발굴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희생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헬기사격·전투기 출격 대기
제보를 받습니다



광주일보 : 062) 220-0633 / 국방부 5·18특조위 : 02) 748-0975

대낮 음주 운항 선박 낚시배 들이받아 1명 사망

여수 돌산 해상에서 소형 어선이 전복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구조됐다.

5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 25분께 여수시 돌산읍 신기항 앞 400m 해상에서 100t급 권형망어선 H호(여수산적)가 인근에서 닻을 내리고 선상 낚시중인 1.18t급 어선 S호와 충돌해 S호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S호에서 낚시를 하던 4명이 바다에 추락했다. S호의 선장 A(47)씨 등 3명은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해경과 돌산해경파출소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하지만, B(41)씨는 이날 1시 45분께 사고현장 인근에서 바다에 떠있는 것을 발견하고 연안구조정에서 태워 곧바로 여수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여수해경은 H호 선장 김모(71)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56%인 상태에서 운항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단합대회 후 지방악화 사망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해야

범일이 절벽이 있는 간혹사가 회사 단합대회로 등산을 다녀왔다가 사흘 뒤 출근길에 쓰러져 숨졌던 직무상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수급권자지위확인 소송에서 5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보상금은 사망 당시 A씨의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박진표기자 lucky@

생떼 쓴 만취 몽골인 불법체류 들롱

○--만취한 30대 몽골인이 119안전센터를 찾아 “집에 보내달라”며 생떼를 쓰다 불법체류 사실이 들롱나는 바람에 그토록 희망하던(?) 국경횡행기에 실려 추방될 위기.

○--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몽골국적 A(38)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50분께 곡성군의 한 교량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온 택시운전자 B(56)씨와 음주 낚시를 즐기던 중 인근에 주차돼 있던 B씨의 택시를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282%) 상태로 운전해 30m 떨어진 광주시 북구 문흥동 119안전센터까지 찾아갔다는 것.

○--지난 2013년부터 불법체류 상태인 A씨는 이날 B씨와 소주 4병, 막걸리 1병 등을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갈증을 느낀 A씨가 음료수와 생수를 사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삼점을 찾지 못하고 광주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

부동산 투자 !
최 선 규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오천경매 H. 010-3605-5000